

|우리가 만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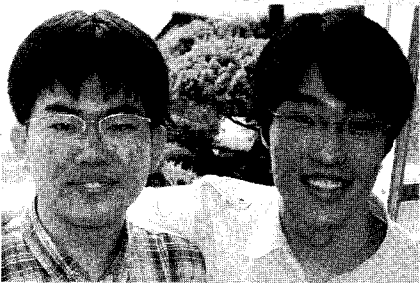
발명가에서 발명가를 키우는 사람으로...

대전 지역에서 눈에 띄는 발명가들이 있다. 바로 대전 대신고등학교 발명교실 '사이빌' 출신의 이광의, 전상웅 학생.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학부에 다니고 있는 이광의 학생(03학번)과 고려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상웅 학생(03학번)은 학생 발명가에서 발명가들을 양성하는 모습으로 대전을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들은 평소에는 자신들의 학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지만 이번 여름엔 고향인 대전에 내려가 후배 양성을 위해 자신들의 황금같은 방학을 선뜻 내놓은 것. 학업과 발명 활동, 두가지 모두에 뛰어난 이들은 학생으로서 처음으로 전자출원과 발명품의 사업화에 대한 강연에 나선다.

대전공업고등학교에서 마련한 강연회에서 발명품의 사업화 방안에 대해 강연하게 된 이광의 학생의 꿈은 사업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강연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이광의 학생은 '발명은 재미있는 것이지만 단순한 발명이 아니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명을 통해 국내 최고의 기업경영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강연회에서 전자출원에 대한 강의를 맡은 전상웅 학생은 학생으로서 최다 출원전수를 기록하고 있다. 40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현재까지 11개의 특허권을 획득해놓은 상태. 발명과 학업을 동시에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전상웅 학생은 '발명에 몰두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발명의 묘미를 알게되면 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발명하고 출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 대전에서 만난 이광의(좌측), 전상웅(우측) 학생. 발명의 매력에 빠진 이들의 모습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제2회 100대 우수 특허제품 대상, 상반기 50선 선정

국민적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 특허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자원부, 특허청, 서울경제신문, 대한변리사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어성발명협회, 한국발명개발원이 후원하는 '제2회 100대 우수 특허제품 대상(大賞)'의 상반기 50개 제품이 선정되었다.

작년에 이어 시행하는 제2회 100대 우수 특허제품 대상은 오는 11월 하반기 50선 선정과 함께 2003년 100대 우수 특허제품을 선정함으로써 특허청에서 주최하는 특허기술대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전시회 내에서의 본상 심사를 통해 국무총리상을 비롯하여 산업자원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 총 42개의 상을 수여하게 된다.

이번 상반기에는 생활용품, 문화, 생활편의서비스, 자동차

설비,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가전, 섬유·피혁, 화학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총 50개의 제품들이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단은 대부분의 제품들이 기술성과 사업성, 디자인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우수한 제품들이 선정된 것으로 향후 이들 제품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려산업, 오복식품, 넥스콘테크놀로지, 금호엔지니어링, 한국기초기술, LG산전, 뉴텍건설화학, 제일모직 등 이번에 선정된 회사와 그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자금지원과 함께 '특허기술대전' 참가 지원, 정부의 '우수구매 추천제도'를 활용한 우수구매 추천기회 부여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우수특허기술 사업화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 출자한 특허투자조합 탄생

특허투자조합 결성총회가 지난 6월 세종클럽에서 하동만 특허청장과 한국산업은행 유지창 총재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동 투자조합은 특허청, 한국산업은행, (주)기보캐피탈이 총 100억원을 출자하여 결성된 것으로, 막대한 비용으로 개발된 특허기술이 사업화 자금 부족으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이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특허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개발된 특허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26%에 불과하고, 사업화의 최대 애로사항은 자금부족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허사업화 기업의 자금부족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과 한국산업은행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의 일환으로 이번 조합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특허투자조합은 등록 또는 출원 중인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는 창업 7년 미만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정보, 산업은행의 자금지원, 그리고 민간투자회사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조합의 투자는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국내 산업



▲ 총 100억원을 출자하여 특허투자조합을 탄생시킨 하동만 특허청장, 한국산업은행 유지창 총재, (주)기보캐피탈 김수한 대표(좌측부터).

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 침체된 국내 벤처투자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이번 '특허투자조합 1호'의 실적추이를 보아 향후 추가적인 조합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정신 Professional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시회 개최 Impressive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고객에게 감동 Responsible 책임감과 신뢰를 원칙으로 한 고객만족 추구 Creative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로 업무수행

“격조 높은 전시회를 열어 드립니다”

www.orientfair.co.kr



- 주요업무**
- 전시개발 및 분석
 - 광고 및 홍보
 - 전시기획 및 운영
 - 이벤트기획 및 운영
 - 해외전시 프로모션



- 주요 전시회**
- 국제주차장 및 주차설비 산업전
 - MBC웨딩페어(춘·추계)
 - 정부조달우수제품 및 디자인전
 - 여성기업우수상품 및 발명품 박람회
 - 여성디자이너 귀금속 명품전
 - 서울 국제 영·유아상품 및 정보 박람회



(주)동양전람 ORIENT FAIR CO., LT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402호 TEL (02) 780-0843 FAX (02) 780-0845

공무원 발명특허 소유권은?

최근 충북 영동군에서 한 공무원이 출원한 특허의 직무관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공무원들의 발명의욕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조원제(43) 지도사는 감즙에 효모를 넣어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알코올 농도 15%인 감술을 개발, 제조방법 등에 대해 지난달 초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다. 조씨의 감술 개발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던 영동군은 조씨가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 발명품 등에 대한 권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군은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공무원은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한 뒤 특허 받을 권리와 특허권을 군에 넘겨주고 보상금을 받도록 한다'는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규정을 들어 감사 차원에서 조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군 관계자는 '조씨가 개발한 감술의 특허권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따라서 군청에 소속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한 것'이라며 '곧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열어 특허의 성격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씨는 불쾌한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조씨는 '내 직무범위는 식물조직배양과 화훼기술, 농업인 기술개발 등으로 감술과 무관하고 2년여 동안 모든 연구와 시험을 개인적으로 진행했다'며 '감술 개발은 엄연한 자유발명으로 군에 권리를 넘겨줄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영동군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통해 '애써 발명품을 내놓은 공무원을 군이 범죄인 취급하듯 조사하고 있다'며 '이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하급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대체로 실용신안이나 발명 등 특허 출원과정에서 자신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보은군청 환경과에 근무하는 이호천(48)씨는 군청을 위해 연간 억대의 현금 수익을 올려주는 모범 공무원이다. 물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온 이씨는 2000년 초소형 카메라에 조명이 장착돼 지하 125m까지 지하수 관정 내부의 상황을 선명하게 촬영하는 휴대용 공내(孔內) 촬영기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개인업체가 상품화에 성공, 조달청을 통해 정부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대당 935만원에 납품되고 있다. 물론 판매액의 5%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 사용료는 특허권자인 보은군에 귀속되며, 올해 1년간 적어도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일 전망이다. 이씨는 또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손쉽게 소독할 수 있는 무동력 소독약 자동투입기를 개발해 군청 명의로 특허를 취득, 연말까지 모두 900여대를 대당 280만원에 전국 자치단체에 판매해 1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올리게 됐다.

그러나 군은 아직까지 이씨의 공로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조례에 보상기준이 있긴 하지만 직무관련 개발비용과 로열티 수입과의 손익분기점을 따질 것인지, 무조건 로열티 수입의 일정액을 줄 것인지 등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발명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직무 관련성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보상금 지급기준을 실제 발명자에게 불리하도록 규정하지 말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컬러링 특허분쟁 장기화 될 전망

통화연결음(일명 컬러링)에 대한 특허권을 둘러싸고 지루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애드링시스템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형사고소건에 대해 최근 서울지방법검찰청이 '특허 소송심 확정 전까지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애드링시스템은 작년 11월 SK텔레콤의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SK텔레콤과 대표이사를 서울지법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은 특허권 존재 유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난 뒤 기소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

애드링이 법원에 특허침해로 고소하자 SK텔레콤도 올 3월 특허심판원에 애드링이 가진 특허가 너무 광범위해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박원섭 애드링 사장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기소 재기 신청을 할 것이고, 향후 통화대기음 서비스 장비 업체 및 관련 CP(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해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른 무선 인터넷 업계에 폭풍이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애드링의 특허는 지난 99년 출원해 2001년 10월23일 등록된 '유무선 통신 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광고 방법'. 이 특허는 교환망 또는 기지국에서 특정 신호나 음성, 음성, 화상 등의 정보를 단말기에 직접 송출해 통화대기음이나 벨소리로 출력해 주는 시스템 구성에 관한 것이다. 애드링은 이 특허가 현재 서비스중인 통화연결음과 거의 흡사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SK텔레콤은 너무 광범

위한데다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애드링측 대리인인 특허법인 원전의 위태환 변리사는 'SK텔레콤에서 광범위하다고 말하지만 원리범위를 크게 줄여 특허 무효 소송에서는 승산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애드링의 특허는 통화 발신자가 음원을 저장하는 방식이어서 수신자가 음원을 결정하고 저장할 수 있는 컬러링 서비스와 다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심판원의 판결에서 이기면 애드링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파기되는 것이고, 특허로 인정되더라도 침해 여부는 법원에서 다시 가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심판원의 빠른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특허심판원에 우선심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지만 특허등록 무효건과 특허침해 소송건에 대한 판결은 해를 넘겨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체험하는 과학 볼거리, 놀거리 풍성

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하여 어디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야할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한다.

■ **에디슨 특별전** 에디슨의 발명품과 100년간 주요 기술발전을 보면서 과학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5월 2일~11월 2일 / 서울과학관 특별전시관 (02)762-1718

■ **여름방학 과학체험** 탕탕볼 만들기, 해시계 만들기, 태양계 그리기, K-nex 조립체험, 신비한 생명탐구 등

특허청 일본과 특허심사 협력체제 기반 마련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일본 특허청과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양국에 모두 출원된 32건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시범적인 특허심사를 수행한 후 그 내용을 비교한 결과, 7건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하기로 하고 25건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등 양국의 특허심사 결과가 일치하였으며 특히,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된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불특히 이유까지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공동의 시범 특허심사 사업은 한국과 일본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특허권을 부여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허심사 결과 상호인정'의 전 단계로 수행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IT, BT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특허심사처리 장기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중복된 특허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에 '특허심사 결과 상호인정' 제도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미국, 유럽 특허청은 3개 국가 중 어느 하나의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특허청에서도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심사 결과 상호인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97년에 합의하였고 이를 위한 3개국 특허청간의 공동 특허심사사업이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수행된 바 있다. 또한 미·일 양국 특허청은 특허심사업무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양국에 모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결과를 상호 이용하기로 하고 2003년까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본과 2000년부터 공동 특허심사를 수행해 온 것이며 중국과는 올해부터 공동의 특허심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일간의 공동 특허심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양국간 '특허심사 결과 상호인정' 제도의 도입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양국간 특허심사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특허청은 특허심사 협력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7월 17일~8월 24일 / 서울과학관 과학관 (02)762-5205

■ **고인쇄 전시·체험** 인쇄술에 대한 전시품 무료 관람과 본인이 직접 인쇄해볼 수 있는 유료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시 운영 / 서울과학관(체험 실습비 - 500원/1장당)

■ **기초과학 체험교실** 물리, 화학, 지구과학 등 각 분야의 과학실험, 실습 및 재미있는 공작도 함께 즐길 수 있다. 7월 21일~8월 14일 사이 매주 월~목 / 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043)601-7913

■ **사이버과학 체험교실** 어렵고 번거로운 과학실험을 사이버상에서 게임을 통해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7월 21일~8월 14일 사이 매주 월~목 / 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043)601-7913